

삼성 KPMG

성공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어드바이저

# Channel

2021  
MAY

•  
Vol.220



## VISION 2025

새로운 시작, 희망찬 도전

## cover story

### 'VISION 2025'를 향한 새로운 시작!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여정을 시작할 때  
'성공하는 사람들은 최고 속력으로 이륙을 한다.'  
전력을 다해 일을 한다는 의미다.  
어떤 일을 하든 그들은 열정을 다해 몰입하는데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특히 그렇다.  
- 브라이언 트레이시 (책 'flex' 중에서)

지난 4월 29일, 삼정KPMG는 온라인으로 'FY2021 사업전략 발표회'를 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Vision 2025'를 선포했습니다.

삼정KPMG는 새로운 Vision 실현을 위해  
최고 속력으로 이륙해, 전력을 다해 나아갈 것입니다.

최고의 전문성과 품질로 건강한 성장을 이루고,  
모든 구성원이 자부심을 느끼는 행복한 일터를 가꾸며,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신뢰받는 조직으로 시장의 변화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QR코드를 통해 삼정KPMG의  
생생한 정보를 만나보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삼정KPMG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 CONTENTS



## 건강한 성장

- 04 FY2021 삼정KPMG**  
‘FY2021 사업전략 발표회’ 개최
- 06 Emerging Trends**  
본격화된 빅테크의 금융 진출,  
금융산업의 미래는?
- 08 Team Story**  
Digital Tech본부
- 10 Client+**  
글로벌 MCN 기업, ‘트레저헌터’
- 12 Market Reader**  
가속페달 밟는 미래 자동차 혁명
- 14 Expert's Advice**  
코로나19 시대,  
상업용 부동산 투자 전략은?
- 15 맛있는 경제**  
알면 더 좋은 시사·경제 상식!

## 행복한 일터

- 17 Culture+**  
불거리가 가득한 영화의 세계로!
- 18 인재양성소**  
‘FY2020 포상 시상식’ 개최  
포상을 수여받은 영광의 얼굴들
- 20 삼정별그램**  
삼정인이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
- 22 Smart Play**  
몸으로 하는 체스, ‘펜싱’ 어때요?
- 24 心 Care**  
‘어떻게 살 것인가?’ 선택은 나의 몫!
- 26 세계는 지금!**  
세계 2위 인구 대국, 인도의 현 상황은?
- 28 Samjong News**  
중견·중소기업 대상 ‘K-SOX 웨비나’ 개최 외

발행처 삼정KPMG  
기획·편집 홍보팀(02-2112-7567)  
디자인 네오메디아(02-512-1666)  
인쇄 드림인쇄(02-464-6161)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  
(우편번호)06236  
홈페이지 [home.kpmg/kr/ko/home.html](http://home.kpmg/kr/ko/home.html)

# Vision 2025: The Clear Choice를 위해! ‘FY2021 사업전략 발표회’ 개최

삼정KPMG는 지난 4월 29일, ‘FY2021 사업전략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전략 발표회’는 Manager 직급 이상 임직원 및 고문단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삼정KPMG는 ‘Vision 2020’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새 도약을 위해 ‘Vision 2025’를 선포하고, 달성 의지를 다졌다.

## 5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 기록하며, ‘Vision 2020’ 성공적 완수

삼정KPMG는 지난 FY2016에 ‘Vision 2020’을 선포하며, 매출 6,000억 원 달성 및 확고한 Big2 체제 구축을 목표 삼아 정진해왔다.

그 결과 지난 FY2016부터 FY2020까지 연평균 성장률 18.5%로, 5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매출 6,288억 원을 달성해 ‘Vision 2020’의 재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이로써 4년 연속 KPMG Global Board Country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며 ‘Vision 2020’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그동안 삼정KPMG는 K-SOX, IFRS17 자문을 비롯해 M&A, 부동산/인프라, 이전가격, Digital Transformation, ESG, ACI 등을 통해 변화의 흐름과 고객의 니즈(Needs)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업계를 선도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Audit, Tax, Deal Advisory, Consulting 모든 Function이 양적·질적으로 균형 있는 성장을 이뤄 비전 달성을 견인했다.

또한, 6년 연속 신입 회계사 최다 채용 및 업계 최고의 보상과 유연 근로제 도입 등 Work & Life Balance를 갖춘 행복한 일터 만들기에 힘써왔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신입 Senior Manager 및 Global Elite Program 우수자에게 해외연수를 제공하고, 전 임직원 영어 교육도 지원했다. 이외에도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창의적이고 스마트한 업무 공간 ‘스마트 오피스’를 구축했으며, 2019년 ‘KPMG Korea 50주년 기념 콘서트’를 통해 구성원들이 마음을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와 함께 ‘Do the Right Thing in the Right Way’를 기반으로 원칙과 기본을 중시하는 문화를 통해, 철저한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해왔다. 감사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회계 업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힘쓰며, 자본시장 발

## ‘Vision 2020’의 성공적 여정과 ‘Vision 2025’를 향한 새로운 도전



“희망찬 도전!  
Vision 2025!”

전에 기여해왔다. 지난 2018년에는 업계 최초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파란 행복을 열어, 장애인 사업참여와 지역사회를 위한 사랑나눔 활동에도 앞장서 왔다.

**Impossible? I'm Possible!**  
**‘Vision 2025’를 향한 힘찬 시작**

지난해부터 이어진 COVID-19 팬데믹 여파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모든 산업 영역에서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세계적 기후변화 위기와 COVID-19을 거치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사회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 역시 커지고 있다. 삼성KPMG는 팬데믹으로 앞당겨진 미래, New Reality(새로운 현실)를 맞이해 새롭고 차별화된 혁신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Vision 2020’ 성취로 얻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Vision 2025’를 선포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새 비전을 통해 1.1조의 매출액을 달성하고, Big1으로 업계를 리드해 나갈 계획이다.

삼성KPMG는 ‘우수인재 확보와 육성’, ‘Quality Performance’, ‘Business Development 활성화’라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핵심 경쟁력을 키우고, 고객을 만족시켜 나갈 것이다. 법인 구성원 85%가 MZ세대로 구성된 만큼 자유와 개성, 진정성, 공유, 재미가 넘치는 생기 있는 조직으로 인재의 행복을 위한 소통과 존중의 문화를 마련해 가고자 한다. 또한 고도의 전문가적 윤리 의식, 글로벌 및 법인의 정책을 준수하고, 철저한 Risk 관리 등을 통해 최고의 품질을 제공할 것이다. 이와 함께 고객의 현장에서 답을 찾고, 고객보다 한발 앞서 신상품을 개발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고객의 불확실성을 확실히 미래로 바꿔가고자 한다.



한편, 김교태 회장은 비전 달성을 위해 임무 앞에 스스로 살아 움직이는 조직, 솔연(率然)의 문화를 강조했다. 김 회장은 “내일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위대한 내일은 준비하는 자에게만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임무 앞에 스스로 살아 움직이는 조직으로 노력하면 ‘Vision 2025’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라며, 새로운 비전을 향해 한마음으로 나아갈 것을 당부했다.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삼성KPMG는 더 큰 도약을 희망하며 ‘Vision 2025’를 향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최고의 역량과 도전 정신으로 Impossible을 I’m Possible로 변화시켜 나갈 삼성KPMG의 힘찬 미래를 기대해본다.



Vision 2025 새로운 도전 >>

# 본격화된 빅테크의 금융 진출, 금융산업의 미래는?

빅테크(BigTech) 기업이 풍부한 고객 기반, 고도의 기술력 등을 바탕으로 플랫폼을 통해 금융업에 진출하면서 경쟁 구도를 재편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국내외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과 이로 인한 금융 생태계의 경쟁 구도 변화, 플레이어들의 대응 방안을 조망해본다.

## 빅테크 기업이 금융업에 진출하는 진짜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금융업의 경쟁 구도가 재편되고 있다.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가진 거대 기술 기업을 뜻하는 빅테크 기업은 SNS, 포털, 유통 중심의 고객 최접점 플랫폼을 바탕으로 혁신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빅테크 기업은 금융업의 후발주자이지만, 대규모 고객 기반과 선도적인 디지털 플랫폼, 데이터 활용 역량과 뛰어난 ICT 기술을 기반으로 금융산업에서의 영역을 공격적으로 확장하는 중이다.

빅테크 기업이 금융업에 진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 디지털에 익숙한 MZ세대가 주력 경제 인구에 부상함에 따라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모바일·온라인 금융 거래에 주력하는 빅테크 기업이 금융산업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됐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 확보를 통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빅테크 기업은 사용자의 온라인 검색기록, SNS 활동 데이터 등 기존 사업에서 축적한 데이터와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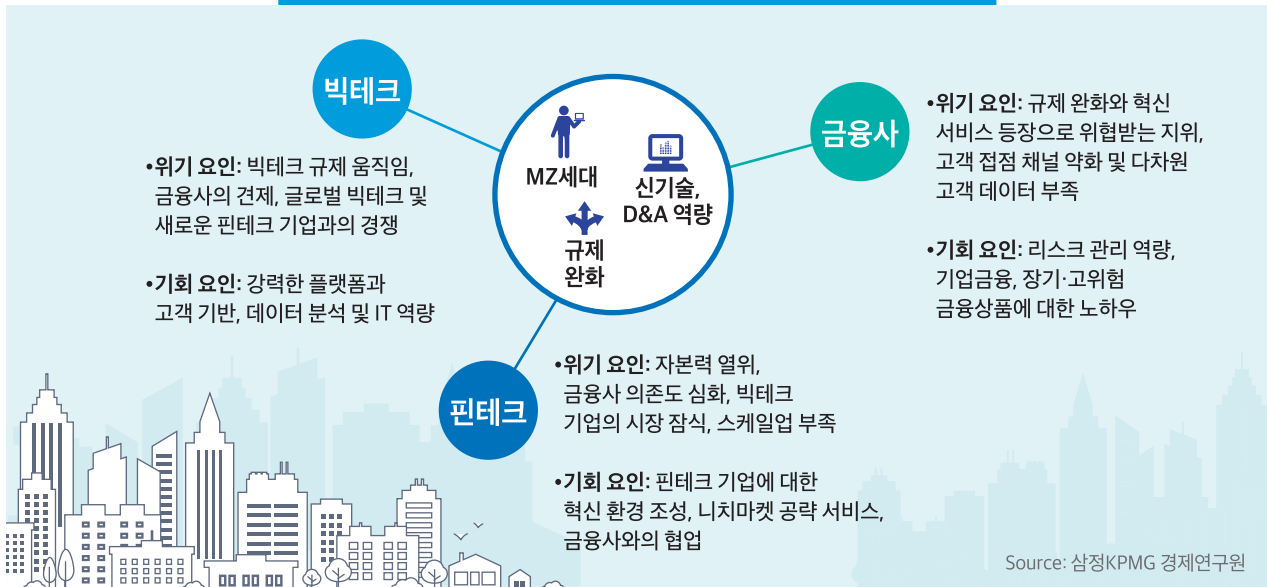
업에 진출함으로써 얻는 고객 상품 및 거래 정보를 결합하여 신규 서비스를 창출하고 기존 비즈니스를 강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각국에서 비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트렌드가 지속되면서 빅테크 기업의 금융시장 진출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

## 국내외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 동향

해외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 동향은 어떠한가? 대표적으로 미국과 중국 빅테크 기업은 SNS, 전자상거래 등 자사 핵심 사업과 거대 자본을 기반으로 금융업에 진출하여 선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이 자사의 지급결제 서비스를 중심으로 기존 금융사와의 파트너십,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암호화폐 개발 등 다양한 행보를 보인다. 중국은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징둥닷컴 등 플랫폼 기업이 지급결제에서 은행업, 보험, 투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국내에서도 모바일 채널을 통한 금융 서비스 접근성이 확대되면서 기존 금융사와 빅테크, 핀테크 등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카카오는 2017년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금융산업에 진출했으며,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를 필두로 금융당국의 라이선스를 직접 취득해 금융산업을 공략 중이다. 네이버는 간편결제 서비스 네이버페이를 확장하고, 2019년 설립한 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해 금융·쇼핑·결제 간 시너지 강화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핀테크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 금융 생태계 변화로 인한 위기와 기회



비바리퍼블리카 또한 토스증권과 토스인슈어런스를 설립하며 종합금융플랫폼으로 도약하고 있으며, 토스뱅크 런칭을 앞두고 있다.

### 디지털 금융 활성화와 경쟁 심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최근 마이데이터(MyData), 마이페이먼트(MyPayment), 종합지급결제업 등 기존 금융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정책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디지털 금융이 활성화됨과 동시에 금융권 내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금융 서비스 분야의 등장은 고객 접점이나 유저베이스(User Base)가 풍부한 빅테크 기업의 강점과 맞물리며 기존 금융사의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산업 내 플레이어들은 모바일 고객 접점에서 상호작용(Interaction)을 강화하고 트래픽(Traffic)을 높여 플랫폼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고객 접점 확대 및 기술 확보를

위한 제휴 및 투자, MyData 도입에 따른 상품 자체의 차별성 제고 및 오프라인 채널의 자문 역량 강화, 금융의 사회적·공공적 가치 창출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독과점, 개인정보보호, 금융시스템 안정성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며, 글로벌 감독 기관을 중심으로 공정한 경쟁의 장을 조성하기 위한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의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디지털 서비스 과세, 개인정보 규제 강화와 역외이동 제한, 핀테크 기업의 결제 시스템 접근성 개편 논의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12월 디지털금융 규제·제도 개선방안이 발표되어 국내 빅테크 기업 또한 제도권 편입이 가시화됨에 따라 금융 시스템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

격화되는 경쟁 환경 속에서 기존 금융사와 빅테크 기업 모두 혁신적 비즈니스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고 소비자 중심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만이 경쟁력을 갖고 금융산업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칼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삼정KPMG 공식 Youtube 영상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본부 · 조재박 전무 Tel. 02-2112-7514 / E-mail. jaeparkjo@kr.kpmg.com  
경제연구원 · 최연경 선임연구원 Tel. 02-2112-7769 / E-mail. yeonkyungchoi@kr.kpmg.com

#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는 Digital Tech본부

Digital과 Tech는 우리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이제 Digital 기술의 활용과 적용은 기업 생존의 핵심 역량이다. 이에 삼정KPMG는 지난 4월 1일,  
기업의 Digital Transformation(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Digital Tech본부를 신설했다. 이번 호에서는 디지털 시대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는  
Digital Tech본부를 만나본다.

## 기술 도입에 앞서 지향하는 Biz 전략 우선시되어야

코로나19로 인해 금융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금융의 플랫폼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를 실현하는 것이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의 기술 발전이다. 하지만 현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개선이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고민 없이 단순 기술만을 도입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책이라 볼 수 없다. 지향하는 미래 금융 비즈니스 전략과 모델에 대한 정의가 선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디지털 테크를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최근 대다수의 IT 인프라 환경이 기존 On-Premise 환경(Data Center)에서 AWS, Azure로 대표되는 클라우드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이해와 심도 깊은 검토이다. 또한, 그동안 독립적인 환경으로 운영되던 공장 네트워크가 각종 IoT 기기 및 모바일 단말과 연결되고 있어, 이제는 기업의 IT 환경뿐만 아니라, OT 운영 환경에 대한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공장 운영 환경 내 각종 설비 및 자산 등을 명확히 식별하고 이들이 가진 위협 요소와 취약점을 제거 또는 완화를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신기술 도입부터 사이버 보안까지, Digital Tech 토탈 서비스 제공

Digital Tech본부(이하 DT본부)는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변화를 주도한다'는 목표 하에, 디지털 기술 및 플랫폼, 신기술 도입, 그리고 사이버 보안에 이르기까지, e커머스 기업의 디지털 변혁을 위한 Total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DT본부의 가장 큰 강점은 'Diversity and Inclusion in Tech'이다. 전략, 프로세스, 마케팅, 데이터, 보안,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서비스 영역과 금융, 제조, 공공, 유통 등 다양한 산업의 경험을 보유한 인재들로 구성됐다. 각자 보유한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원들이 상호 간에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다양한 산업군에 디지털 전략, ISP, PI부터 사이버 보안, 클라우드 아키텍처 설계, 시스템 구축, PMO에 이르는 End-to-End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양성뿐만 아니라 특정 영역에 대해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업계를 리딩하고 있다. 클라우드 컨설팅의 경우 클라우드에 대한 전문성 및 다양한 사업 경험과 함께 CSP(Cloud Service Provider)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객관적인 시각으로 최적 인프라를 설계하고, POC(개념증명)를 통한 세부 검증까지 진행함으로써 즉시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공공재정 컨설팅은 업계 최초로 국내 4대 재정 시스템인 국가재정(dBrain), 지방재정(e호조), 지방교육재정(edufine) 및 국립대재정(KORUS) 차세대 구축 사업을 모두 성공적으로 이끌며 시





장에서 독보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끝으로 국내 최대, 최고 수준의 보안 컨설팅 인력을 보유하고 업계 사이버 보안 영역을 리딩하고 있다.

한편, DT본부는 디지털 전략과 구축, 보안이 하나로 융합된 가치를 제공하며 ‘국내 디지털 컨설팅의 모든 길은 KPMG로 통한다’라고 평가받는, 업계 최고의 디지털 컨설팅 그룹이 되는 것이 목표이다. 새로운 트렌드와 기술을 이해하고, 다양한 디지털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며, 여러 기술 업체 등과의 협업으로 **삼성KPMG만의 차별화된 디지털 컨설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 • Digital Tech본부 주요 서비스 •

### DT&P (Digital Tech & Platform)



- 빅데이터 기술 기반의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전략 및 설계
- AI 플랫폼에 대한 기술 및 설계
- 디지털의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 전환 전략 및 아키텍처 설계
- Salesforce 및 Servicenow 등과 같은 Solution 기반의 Powered Service

### Cyber Security



- 국내외 다양한 정보보호 관련 법률 및 제도 등 Compliance 대응 체계 수립 자문
- IoT, AI, 클라우드, 자동차 보안 및 자율주행 등 신기술 영역에 대한 Technical Risk 대응 자문
- 공장, 설비, 및 제조 산업환경에 대한 OT(Operational Technology) Security 자문
- Cyber Security 수준 향상 위한 보안 전략 수립 및 최적화 대응

## INTRODUCE

## • ‘Digital Tech본부’를 소개한다면?

**김원택 전무**  
(본부장)

wontaegkim@kr.kpmg.com



“우리 본부는 ITA팀과 CSS팀이 합쳐져 신설되었습니다. DT&P와 Cyber팀의 강력한 시너지를 바탕으로 데이터/AI 플랫폼, 클라우드, 공공재정, 사이버 보안 등 다양한 영역의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디지털 테크 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하겠습니다.”

**김민수 상무**  
(사이버팀 리더)

mkim9@kr.kpmg.com



“사이버팀은 이미 보안 컨설팅 분야에서는 국내 최고 수준 최대 규모를 달성했습니다. 향후 국내에서 가장 체계적인 보안 컨설팅 제공과 효과적인 보안 시스템 구축을 동시에 수행하여 디지털 시대의 순찰자이자 최후의 골키퍼가 되겠습니다.”

**박성철 상무**  
(DT&P팀 파트너)

sungchulpark@kr.kpmg.com



“DT&P팀은 디지털 전략부터 프로세스 개선, 시스템 구축까지 금융 및 공공 부문에 특화된 End-to-En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높은 Value를 제공하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TREASURE HUNTER

## 크리에이티브한 콘텐츠로 세상을 바꾸다. 글로벌 MCN 기업, ‘트레저헌터’

2015년에 설립한 트레저헌터는 한국 MCN 산업의 선구자이자 크리에이터 기반의 콘텐츠·마케팅·커머스 사업을 선도하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뉴미디어 기업이다. 크리에이터가 중심이 되어 새로운 콘텐츠 시장을 이끌어 가고 있다.

### I 크리에이터 기반의 MCN 사업 선도

트레저헌터는 2015년 1세대 MCN(Multi Channel Network, 다중 채널 네트워크) 기업으로 출발했다. MCN 사업은 뉴미디어를 무대로 한 크리에이터의 육성과 매니지먼트를 바탕으로, 시청자에게는 유익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기업 고객에게는 다양한 광고·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하며, IP를 통한 다양한 부가사업을 펼치는 새로운 사업이다.

트레저헌터는 YouTube를 중심으로 한 뉴미디어 플랫폼 기반에서 활동하는 300여 명의 크리에이터와 함께 다양한 트렌드를 주도하는 콘텐츠를 선보이며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시청자와 만나고 있다. 국내 최고 크리에이터인 빅마블, 양수빈, 교광TV, 두자매, 꿀꿀선아, 덕헌터 등과 함께 하고 있다. 또한, 크리에이터의 육성과 매니지먼트를 통해 PPL 및 브랜드 콘텐츠 마케팅, 기업 브랜드 유튜브 채널 콘텐츠 운영, 라이브 커머스는 물론, 크리에이터와 함께 자체 브랜드를 출시해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 I MCN 최초 멀티미디어 커머스 마케팅 제공

YouTube·Tiktok 등의 뉴미디어 확산에 따라 기업과 브랜드는 레거시 미디어(Legacy Media, 전통 미디어) 외 뉴미디어에 대한 마케팅을 확장하고 있다. 트레저헌터는 이와 같은 브랜드의 니즈에 최적화된 통합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한다. 크리에이터의 육성과 매니지먼트 노하우와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기업 및 정부 부처의 유튜브 브랜드 채널 콘텐츠를 전달 운영하고 있다. 브랜드 채널의 초기 기획부터 개설, 콘텐츠 제작, 활성화, 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특히, 브랜드의 성





1

향에 맞는 크리에이터를 선정하고, 브랜드의 특징점을 잘 살린 영상 콘텐츠를 기획·제작해 시청자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또한, 트레저헌터는 최근 급성장 중인 라이브 커머스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상품에 대한 분석력, 방송 기획의 전문성, 판매로 직결되는 정보 전달력을 기초로 커머스 전문 크리에이터를 양성하고 있으며, 개별 브랜드 및 포털·오픈마켓 등의 온라인 유통 플랫폼과 함께 라이브 커머스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디지털 마케팅은 물론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에 이르는 원스톱 마케팅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MCN 기업 중 트레저헌터가 유일하다.

### 한국형 MCN 생태계 안착 주도해 아시아 최고의 MCN으로 나아갈 것

트레저헌터는 1세대 MCN 사업자로서의 사명감과 한국형 MCN 생태계 안착을 목표로 크리에이터와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다양한 사업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MCN 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2016년 평생교육원을 설립하여 공공기관 및 지자체와 크리에이터를 육성하고, 크리에이터 민간자격증을 발급하며 MCN 생태계 조성에 매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트레저헌터는 레페리(국내 최대 뷰티 MCN), 티아이 이엔티(키즈/장난감 전문 MCN) 등 전문 자회사 파트너십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해 가고 있다. 또한 중국, 동남아시아 지사를 통해 각국의 현지 크리에이터와 함께 현지 환경에 맞는 사업을 일궈가며, 아시아 MCN 생태계를 구축해 가고 있다. 이를 통해 다가오는 MCN 3.0 시대에서 한국을 넘어 아시아 최고의 MCN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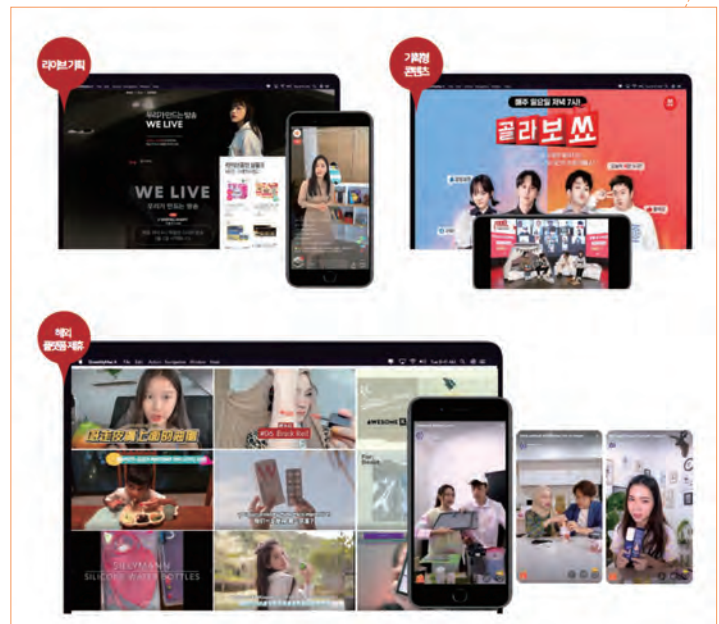


2

1. 트레저헌터 소속 주요 크리에이터 : (왼쪽 위부터) 빅마블, 양수빈, 교광TV, 듀자매, 꿀꿀선아, 덕헌터
2. 트레저헌터는 브랜드의 니즈에 최적화된 통합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한다
3. 트레저헌터는 기업의 유튜브 채널 기획부터 콘텐츠 제작, 운영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4. 트레저헌터는 국내외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 역량과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다



3



4

# 가속페달 밟는 미래 자동차 혁명

코로나19는 자동차 업계에게 어떻게 기억될까? 한 해 동안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을 14% 이상 감소시킨 블랙스완으로 기억될까? 아니면 혁신을 앞당긴 분기점으로 기억될까? 코로나19로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은 큰 위기에 직면했지만, 역설적으로 자동차 산업의 메가 트렌드인 친환경차,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있다.



## 전기차의 무한 질주, 다시 시동 건 수소차

코로나19로 인해 환경보호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강화되고 전 세계적인 경제재건 정책으로 그린뉴딜이 채택되면서, 친환경차의 수요가 더욱 촉발됐다. 2020년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약 324만 대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년 대비 무려 43% 성장한 수치이다. 동기간 코로나19로 전체 자동차 판매량이 급감한 것을 상기해 보면, 전기차가 얼마나 폭발적인 성장성을 보여 주는지 알 수 있다.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으로 2020년 7월, 테슬라는 나스닥에 상장된 지 불과 10년 만에 자동차 기업 시가총액 1위에 올라섰다. 위기감을 느낀 기존 자동차 기업들도 전기차 라인업을 확대하면서 맹렬히 추격하고 있다. 2025년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출시 계획을 모두 합하면 3,87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IEA(국제 에너지기구)는 2030년 전 세계에서 운행되는 전기차가 약 1억 2,50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기차와 함께 수소차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2020년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수소경제 로드맵과 수소전략을 속속 발표하면서 잠시 주춤했던 수소차 보급이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소차는 현대자동차가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2020년 글로벌 판매 점유율 69.0%를 차지하는 등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앞으로 수소차는 트럭 등 상용차 부문에서 새로운 경쟁력을 갖고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 눈앞에 다가온 자율주행 시대

코로나19로 전 산업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확산됨에 따라, 테스트베드에 있던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상용기술로 적용되고 있다. 비대면 수요도 폭발하면서, 자율주행의 상용화 시계도 덩달아 빨라지고 있다. 현재 자율주행 기술은 제반 규정, 인프라 등의 제한으로 인해 양산 측면에서는 진행이 다소 더딘 반면, 순수 기술적 완성도는 완전 자율주행 단계인 Level 4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IT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기술 진보가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의 기술조사 업체 내비건트 리서치에 따르면 구글의 웨이모는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자율주행 기술력 1위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기술력 순위 상위 5개 기업 중 3개 기업이 IT 기업으로 선정됐다.

자동차 기업들도 IT 기업들과 합병 및 투자 등을 통해 자율주행 헤게모니

를 선점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IT 기업과 자동차 기업들의 합종연횡이 가속화되면서, 각 기업이 발표한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계는 현재 2022년으로 맞춰져 있다. 법·제도의 정비와 소비자의 인식개선 등으로 자율주행 대중화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만,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자율주행 시대는 이미 눈앞에 성큼 다가왔다.

### 진화하는 모빌리티 서비스

코로나19는 모빌리티 서비스도 확장시켰다. 음식 배달, 생필품 구매 대행, 택배 등 모빌리티 기반 플랫폼 서비스들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즉 코로나19 이전에는 ‘사람의 이동’ 그 자체가 주 목적이었지만, 또 다른 목적을 위해 모빌리티를 활용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코로나19로 매출 급감의 위기를 겪으면서도 우버의 기업가치가 유지되고, 우버의 플랫폼 비즈니스가 여전히 각광받는 이유는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로의 확장성을 가졌기 때문이다. 우버는 생필품 구매를 대행해주는 ‘우버코너스토어’, 음식을 배달해 주는 ‘우버이츠’,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러시’ 등 모빌리티 플랫폼을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차량호출 사업의 매출은 급감했지만, 우버이츠 등 배달 사업은 오히려 크게 성장했다. 우버뿐만 아니라 고젝(Gojek)과 디디추싱(Didi Chuxing), 그랩(Grab) 등의 모빌리티 기업들은 모두 승차 공유에서 출발했지만, 현재는 결제 서비스 외에도 음식 배달, 물류 배달, 공과금 납부와 같이 생활 전반의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슈퍼 애플리케이션 기업으로 진화 중이다. 친환경차,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로 대변되는 미래 자동차 혁명은 이중 단 한 가지의 변화만으로도 기존 질서의 붕괴를 가져올 만큼 파괴력이 있다. 하지만 현재 이 세 가지 변화가 동시에 진행 중이며, 예기치 않게 찾아온 코로나19는 이러한 변화를 더욱 가속화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혼란기는 오히려 기존의 견고한 체계를 무너뜨리고 시장의 헤게모니를 가져올 기회이기도 하다. 자동차 산업은 이제 종합 모빌리티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우리 기업이 빠른 대응을 통해 다가오는 모빌리티 생태계에서 승자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 CONTACT US

#### 자동차산업 리더 위승훈 부대표

Tel. 02-2112-0620  
E-mail. swi@kr.kpmg.com

#### 경제연구원 임두빈 수석연구원

Tel. 02-2112-7469  
E-mail. doobeenyim@kr.kpmg.com



### 코로나19로 인해 가속화되는 자동차 산업의 메가 트렌드

#### Pre COVID-19

시대적 배경	메가 트렌드
·파리기후변화협약 ·디젤 게이트 및 환경규제 강화	친환경차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IoT 등)	자율주행
·공유경제 ·플랫폼 비즈니스 확산	MaaS

#### With·Post COVID-19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메가 트렌드 가속화
·전 세계적인 그린뉴딜 ·수소경제로의 이행 ·ESG 경영 강화	친환경차 가속화
·비대면 확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자율주행 가속화
·음식 배달, 구매 대행, 택배 등 모빌리티 기반 플랫폼 서비스의 확대	MaaS 가속화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

Note 1: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 Note 2: MaaS는 서비스로서의 모빌리티(Mobility as a Service)를 의미

# 코로나19 시대, 상업용 부동산 투자 전략은?

부동산은 개인에게도 필수재이자 투자재로서 중요한 실물자산일 뿐 아니라 기업에도 인력·자본·기술 등이 결합돼 사업 활동이 이뤄지는 핵심 공간이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경제·사회적 구조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킨 코로나19는 상업용 부동산 투자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삼성KPMG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다.

## Q1 코로나19가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요?

디지털 전환이 촉발되면서 업무 비대면화, 자동화 필요성이 높아지자 노동의존도를 낮추거나 기존 공간을 재배치하려는 수요가 높아졌습니다. 글로벌 자국우선주의로 중국 중심의 글로벌가치사슬(GVC) 재편은 물론, 기존 공장이나 사업장 등 거점을 아시아 지역으로 옮기거나, 본국으로 복귀하는 리쇼어링 등을 고민하는 기업도 많아졌습니다. 또한, 높아진 유동성과 저금리·저성장 기초에서 데이터센터, 물류센터와 연계된 리츠 등에 대한 대체투자 수요 역시 높아졌습니다.

## Q2 글로벌 기업의 상업용 부동산 활용 사례가 있나요?

대표적 사례로 아마존의 전략적 물류센터 투자, 뉴욕타임즈의 빌딩 매각 후 재임차(세일앤드리스백)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아마존은 온라인 쇼핑이 성장하기 전인 1990년대 후반부터 물류부동산에 투자해 2006년 FBA(Fulfillment By Amazon) 물류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중소기업 등 제3자인 판매자에게도 아마존의 물류센터 서비스를 오픈하며 이용자와 셀러 간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유통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2009년 금융위기 때 뉴욕 한복판에 52층 건물을 완공한 후 약 10억 달러 이상의 부채 부담으로 재무적 위기를 겪었지

만 미국 부동산신탁사에 세일앤드리스백 방식으로 2억 2,500만 달러에 매각하되 채매입 옵션을 명시했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자금을 활용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추진 중입니다.

## Q3 성공적인 상업용 부동산 투자 전략은 무엇인가요?

기업은 부동산을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사적 사업목표와 연계한 기업부동산 경영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물적·투자 자산을 넘어 전반적인 기업 활동이 융합되는 공간인 만큼 사업 세부 전략과 연계해 구조화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부서와 인력이 과학적 관리 방법을 고민하고 자금조달 구조, 세무, 회계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와 타 부서가 긴밀히 공조할 수 있는 조직 프로세스 구축 등도 고민해야 하며, 기업의 사업 방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보유한 외부 기관과의 파트너십 체결도 고려해야 합니다.



Deal Advisory4본부 서광덕 상무

Tel. 02-2112-0170

E-mail. kwangdukseo@kr.kpmg.com

<이 칼럼은 지난 3월 15일 게재된 한경 CFO Insight '코로나19와 상업용 부동산 투자 전략' 기고문을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 알면 더 좋은 시사·경제 상식!



최근 코로나19로 현금 없는 사회가 앞당겨지면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이 논의 중이다. 또한, ESG가 화두에 오르면서 그리니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 그리니엄은 무슨 의미일까? 최근 가장 주목받는 용어와 통계를 살펴보는 ‘맛있는 경제’를 통해 배워보자.

##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중앙은행을 뜻하는 ‘Central Bank’와 디지털 화폐(Digital Currency)를 합친 용어로, 실물 명목화폐를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의미한다. 여기서 디지털화폐는 내장된 칩 속에 돈의 액수가 기록되어, 물품이나 서비스 구매 시 사용액만큼 차감되는 전자화폐를 가리킨다.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비대면 금융 거래가 급증하자 각국의 중앙은행 발행 CBDC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중국과 스웨덴은 시범 운영에 나서 내년 상반기(1~6월)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 한국 역시 올해 말 시범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 ✓ 그리니엄 (greeni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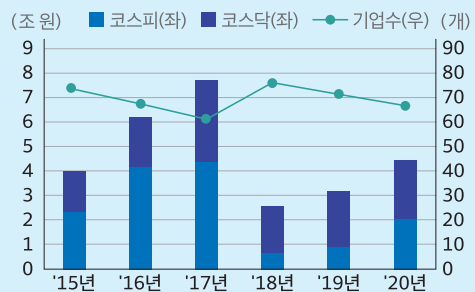
그린(green)과 프리미엄(premium)의 합성어로 녹색채권 차입금리가 전통적인 일반채권 차입금리를 하회하는 현상을 뜻한다.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하면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중시하는 투자성향이 강화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에 초점을 맞춘 녹색채권 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 스웨덴 스칸디나비아상업은행에 따르면 올해 녹색채권 신규 발행액은 5천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변화 위험으로 자산가치가 하락하거나 상실할 우려가 있는 좌초자산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자, 투자자들 사이에서 녹색채권 선호 경향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출처: 연합인포맥스

## 코로나19 상황에도 국내 대형 IPO 지속 증가

국내 기업공개(IPO) 시장이 코로나19 발발 이후 2020년 하반기부터 회복되는 모습이다. 2020년 중 IPO 기업은 총 70개사(4조 5,426억 원)로 2019년 73개사(3조 2,101억 원)에 비해 소폭 감소했으나, 전체 주식 공모 규모는 전년 대비 41% 증가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하반기 이후 풍부해진 유동성과 개인투자자의 적극적 주식 시장 참여에 힘입어 빅히트엔터테인먼트(현 하이브, 0.9조 원), SK바이오팜(0.9조 원), 카카오게임즈(0.3조 원) 등 대형 IPO가 투자자의 관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2021년 1분기 중 공모주 청약에 몰린 자금이 이미 2020년의 절반을 넘어서며 IPO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국내 기업공개(IPO)추이



Source: 금융감독원

Note: 스팩·리츠·코넥스 신규 상장, 재상장은 분석대상에서 제외

행복한 일터

# HAPPY WORKPLACE

## Culture+

볼거리가 가득한 영화의 세계로!

## 인재양성소

'FY2020 포상 시상식' 개최  
포상을 수여받은 영광의 얼굴들

## 삼정별그림

삼정인이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

## Smart Play

몸으로 하는 체스, '펜싱' 어때요?

## 心 Care

'어떻게 살 것인가?' 선택은 나의 몫!

## 세계는 지금!

세계 2위 인구 대국, 인도의 현 상황은?

## Samjong News

중견·중소기업 대상 'K-SOX 웨비나' 개최 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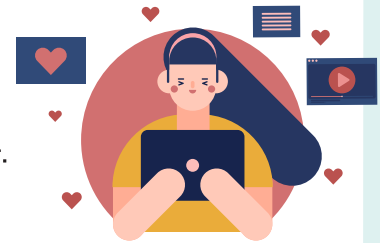




## 삼정인이 추천하는 문화 콘텐츠 볼거리가 가득한 영화의 세계로!



삼정인이 직접 보고, 경험한  
다양한 문화 예술 콘텐츠를 추천하는 칼럼 'Culture+'.  
이번 호에는 삼정인이 감명 깊게 본 두 가지 영화를 준비했다.



장르, 소재, 스토리가 신선한 미술 작품의 세계로!  
영화 **'작가미상'**

저는 삼정인 여러분들에게 '작가미상'이라는 독일 영화 한 편을 추천하고 싶어요. 이 작품은 독일 출신 현대미술의 거장 게르하르트 리히터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로, 3시간의 긴 러닝타임에도 불구하고 깊은 몰입감을 주는 명작입니다. 영화의 모태인 게르하르트 리히터는 독일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작가로 사진 대 회화의 매체를 재해석하고 그 영역을 확장한 작가로 평가받아요. 참고로 그의 작품은 현재 생존한 미술 작가의 작품 중 가장 비싸게 거래되는 작품 중 하나라고 해요. 우리처럼 미술 어린이, 미린이들도 영화를 보고 나면 주인공과 함께 독일의 20세기 격변기를 함께하며 미술을 깊게 공부한 느낌이 들어요. 때마침 에스파스 루이비통 서울에서 7월 18일까지 '4900가지 색채'라는 영화 속 주인공 게르하르트 리히터의 작품을 전시 중이니 연계 관람 추천드립니다!



**'작가미상'**  
장르 드라마/스릴러  
감독 플로리안 헨켈 폰  
도너스마르크  
출연 톰 실링, 폴라 비어,  
세바스티안 코치 외

김진귀 전무 (B&F3)

따뜻한 봄날 비밀스러운 정원으로!  
영화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정원'**

저는 포스터에서부터 신비로운 느낌이 가득한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 정원'이라는 영화를 추천합니다. 따뜻한 색감과 볼거리가 가득한 이 영화는 어릴 적 부모님을 잃은 트라우마로 33년째 말을 하지 않는 주인공 폴에 대한 이야기예요. 폴은 우연히 마들렌과 차를 마시고 과거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후 아픈 과거의 기억을 마주하며 아픔을 돌파하는 연습을 하고 또 이뤄냅니다. 일상이 바쁜 현대인들은 불행한 일이 생기면 빨리 잊으려고 애를 쓰지만, 잊고 살았던 그 기억들이 문득 떠오를 때는 정말 많이 아프기도 해요. 영화 속 주인공처럼 차 한 잔과 마들렌으로 지금 나에게 어떤 감정이 있는지 천천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그럼, 주인공의 다양한 감정을 느껴볼 수 있는 이 비밀스럽고 아름다운 정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정원'**  
장르 드라마  
감독 실뱅 쇼메  
출연 귀욤 고익스, 앤 르 니,  
베르나데트 라프 외



박민지 인턴 (IA)



# 'FY2020 포상 시상식' 개최

## 포상을 수여받은 영광의 얼굴들

묵묵히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법인과 함께 '건강한 성장'을 이룬 삼정인들.  
 지난 'FY2021 사업전략 발표회'에서는 FY2020에 우수한 성과를 보여준 삼정인들에게  
 포상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 영광의 얼굴들을 만나본다.

### · FY2020 삼정KPMG 포상 수상자 ·

포상명	구분	수상자	수상 선정 이유	포상금/후가
최우수 본부상	본부	Deal Advisory5 본부	탁월한 업무 수행과 새로운 업무 개발, 협업으로 최고의 건강한 성장을 이룬 본부	500만원
우수 본부상	본부 (공동수상)	CM2 본부		300만원
		IM2 본부		300만원
Professional of the Year	개인	차용재 Director (IM1)	연중감사 수행 등을 통한 품질 및 업무 효율성 증대, 감사 이슈의 선제적 파악 및 Challenge 제기를 통해 회계투명성 강화에 기여	100만원/3일
	팀 (공동수상)	대한항공의 인수실사 및 회계통합 프로젝트팀 (DA2, DT1, IM3, IM4) 쿠팡 Account Recon팀 (DA2, DA3, DA4, DA5, DA6, ICE1, ICE2, B&F3)	항공업에 대한 전문성 및 다양한 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 업무 경험 인정 대형팀 구성원 모두의 높은 전문성과 Integrity를 기반으로 수준 높은 결과물 산출, 목표를 위해 끊임없이 단합하고 난관을 극복한 모범적인 팀워크 발휘	200만원/2일 200만원/2일
Business Development of the Year	팀 (공동수상)	ESG팀 (SCG)	ESG Trend를 선제적으로 예측, 사전 준비 및 국내 최초로 시장에서 언급, 주요 기업들과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ESG 시장 개척	200만원/2일
		MyData팀 (Digital)	마케팅데이터 사업 본격화 및 End-to-End 서비스 제공으로 시장 내 독보적 위치 자리매김, 금융을 넘어선 비금융 데이터와의 융합 등으로 데이터 경제 실현 및 산업 발전 기여	200만원/2일
GKP of the Year	개인	이치현 S.Manager (베트남 Korea Desk)	감사고객 관리 및 Advisory 수익 확대를 통해 파견기간 동안 높은 성장률 달성, KPMG 베트남과 협업을 통하여 업무 기회 발굴에 적극적 기여	100만원/3일
Recruiter of the Year(신입)	개인	강진명 Director (ICE2)	Employer Branding을 반영한 긍정적인 역할 및 선배 회계사로서 롤 모델 제시, 리크루팅 TF 내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신입 수습회계사 채용 시 우수인재 확보	100만원/3일
Probono of the Year	개인	김주희 과장 (ATO)	전문성을 살린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사)해외입양연대의 업무 지원, 재능기부 업무에 긍정적이고 성심껏 임함	100만원/3일
Innovator of the Year	팀 (공동수상)	슬기로운 법인생활팀 (B&F1)	'슬기로운 법인생활' 가이드를 자발적으로 작성해 신입 회계사들의 법인 생활 적용에 기여, 선후배 간 의사소통을 통해 더 나은 조직, 행복한 일터를 위해 노력	200만원/2일
		K-TAX팀 (TAX5)	법인세 신고관리 솔루션 개발을 통해 업무 효율성 강화 및 위험관리 개선, 새롭게 개발한 DB 기능은 마케팅에 적극 활용 가능	200만원/2일



**고객에게 힘이 되는  
본부가 될 것**  
**'최우수 본부상'**  
김이동 본부장 (Deal Advisory5)



수상 소식을 듣고 옛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본부는 2015년 9명으로 작게 시작해서, 현재 72명이 되었는데, 그동안의 크고 작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갔습니다. 무엇보다 본부원들의 노력과 희생 덕분이고, 선후배 파트너님들, 고객들이 돕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첫 시작의 초심과 열정을 잃지 않고 항상 노력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본부는 고객들에게 힘이 되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는 서로 의지가 되는 조직이 되고 싶습니다. 큰 상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항상 노력하는 5본부가 되겠습니다.



**Professional 되새기며  
사회에 기여하고자**  
**'Professional of the Year'**  
차용재 Director (IM1)



기쁨과 동시에 수상의 무게감이 교차했습니다. 이번 수상으로 'Professional'의 의미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가 됐는데, 이는 KPMG의 5 Values를 내재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Inspiring Confidence, Empowering Change'를 실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Professional'이 가지는 단어의 무게감을 더욱 느끼고, 법인과 고객, 그리고 사회에 기여하는 회계사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 품질 제고와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법인 내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IM1, No.1'을 향해 노력하시는 본부장님과 파트너분들, 본부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The Clear Choice'**  
**실현해 갈 것!!**  
**'Professional of the Year'**  
쿠팡 Account Recon팀,  
이지혜 Manager (Deal Advisory3)

수상 소식을 듣고 큰 감사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팀은 미국 증시 상장을 앞두고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 KPMG US와 협업해 재무상태표 계정 reconciliation 업무를 수행했고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완료했습니다. 이는 타 본부에서 모인 40인이 한 팀이 되어 소통하고 신뢰하는 Together 문화로 업무를 수행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해 보인 일을 해내도록 응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김진만 부대표님과 노정환 상무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의 니즈와 기대를 뛰어넘어 항상 'The Clear Choice'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복한 일터  
만들어 나갈 것**  
**'Innovator of the Year'**  
슬기로운 법인생활팀,  
오진호 S.Manager (B&F1)

누구에게나 설레지만 어렵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될 신입 회계사들의 법인생활 적응을 돕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주기 위해 자발적인 참여자들을 모집해 '슬기로운 법인생활'이라는 가이드북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후배들에게 선물을 주려는 취지였는데, 되레 이렇게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후배 회계사님들과 함께 성장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소통 및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정의 달 특집! 삼정인이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면 소중한 가족에게 되레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우리에게 5월은 부모님의 은혜, 부부의 연, 아이들이 주는 기쁨에 대해 생각하는 달이다. 5월을 맞이하며, 소중한 가족에게 편지를 전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존경하는 부모님과  
고마운 우리 가족!

장선미 Director (CS 임원실)



그 길고 고단한 삶을 거쳐 칠순을 훌쩍 넘은 올 엄마는 뿌린 것을 거둬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연세가 되었어요. 아빠는 물론이고, 아들과 딸, 며느리, 사위에 손주, 손녀까지 우리 가족은 언제나 엄마가 누리시길 원했지만 엄마가 진짜 원하는 건 다른 것이었어요. 치매에 걸린 엄마는 응석받이 아이가 되었고, 가족들이 항상 웃어주고 예뻐해 주고 안아주고 먹여주고 씻어주는 알뜰살뜰한 애정을 원해요. 엄마가 진짜 원하는 걸 해주시려 하는 아빠, 우리 가족 모두 늘 감사하고 존경하고 자랑스럽고 사랑합니다.



든든한 버팀목 엄마, 아빠!

이예림 직원 (Deal Advisory1)



엄마, 아빠! 항상 내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줘서 고맙고 언제나 내 편이 있다는 생각에 힘내서 열심히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혼자였다면 여기까지 절대 해내지 못했을

거야. 앞으로의 새로운 시도에 있어 기대 반, 두려움 반이지만 내가 어떤 선택을 하건 나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주는 부모님이 있어 행복합니다. 우리 가족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할 수 있도록 내가 더 잘하고 효도할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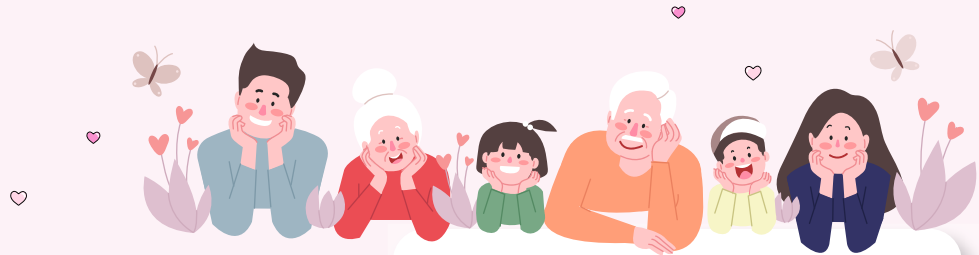


올해 네 식구가 된 우리 가족

박상진 S.Manager (IM3)



1월 Busy Season의 시작과 함께 새로운 가족으로 찾아와 어느덧 100일이 된 둘째 정명이, 가족과의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하지만 아빠가 제일 좋다고 항상 말해주는 첫째 정우, 예쁜 두 아들과 큰 아들인 저를 항상 보살펴 주는 우리 아내 새봄 씨. 힘들고 바빠서 다투는 일도 많았지만 우리 네 가족 지금처럼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자. 사랑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조카  
윤서에게**

양시평 S.Senior (B&F3)

윤서가 이모한테 편지는 많이 써줬는데, 막상 이모는 편지를 쓴 적이 거의 없는 것 같네. 이렇게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 이 기회를 빌려서 편지를 써~! 얼마 전에 손가락 골절로 다쳐서 수술한다고 전해 들었을 때 정말 너무 놀랐는데, 다행히 수술도 잘 되고 잘 회복하고 있어서 다행이야. 이모가 항상 사랑하는 거 알지? 지금처럼 예쁘게 잘 커서 평생 친구 같은 좋은 이모 조카 관계로 지내자~!



**사랑하는 동윤, 정연  
그리고 여보!**

서창원 Director (IM2)



코로나19로 힘겨운 집콕 식사와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고 컴퓨터 화면으로 친구를 사귀는 답답한 시기에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있어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새해 소망처럼 귀인상봉, 승진발원할 수 있도록 우리 가족 파이팅! 듬직하고 너그러운 아들, 딱 부러지는 똑똑이 딸 사랑해!



**힘내요, 우리 언니!**

이지영 과장 (Tax5)

언니, 작년 한 해 우리 가족 힘든 일이 많았지만 잘 해냈잖아. 올해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너무 힘들어 하지 말자. 언니랑 맛있는 것도 먹고 맥주도 한잔하고 싶은데 멀어서 보기가 힘드네. 그래도 이젠 내가 한국에 있으니 예전보다는 훨씬 가깝지. 언니 힘내! 내가 힘이 되어 주지 못해서 늘 미안하고, 나는 언니가 있어서 늘 든든한데, 나도 얼른 한국 생활 정착하고 언니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될게. 항상 건강하고 아무리 바빠도 언니 스스로도 잘 돌봐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내가 첫 월급 타면 맛있는 거 살게! 그리고 코로나 잠잠해지면 꼭 다시 여행도 가자.



# SCG 김상우 Consultant 몸으로 하는 체스, ‘펜싱’ 어때요?

삼정인들은 퇴근 후 여가 활동을 어떻게 즐기고 있을까? 삼정인들의 취미 활동의 다양한 꿀 팁을 들어보는 ‘Smart Play’. 이번 호에서는 김상우 Consultant를 통해 펜싱의 매력에 빠져본다.



고대펜싱부 OB회장배 펜싱 선수권 대회  
우승 기념 사진 (맨 좌측이 김상우 Consultant)



학교 캠퍼스 안에서 펜싱 경기를 하는 모습

##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짜릿한 감동을 안겨준 펜싱의 세계

펜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도, 이 장면은 기억할 것이다. 바로 ‘2016 리우올림픽’ 에페 경기에서 박상영 선수가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되새기며 13:9에서 역전을 이뤄낸 순간을! 이 날 승리로 대한민국 최초 펜싱 에페 개인전 금메달을 안겨줬다. “그날 경기를 본 모두가 짜릿한 기쁨을 느꼈을 거예요. 펜싱의 매력은 그 어려운 일을 해냈을 때, 짜릿한 환희를 맛볼 수 있다는 점 이죠!” 대학교 입학 후 ‘재미있고 멋진 활동이 있을까?’ 고민하던 중 펜싱 동호회에 참여하며 펜싱을 시작한 김상우 Consultant. 그는 펜싱으로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얻었다고 한다. “펜싱 경기를 하다 보면 ‘리우올림픽’ 박상영 선수의 경기처럼, 역전의 상황들이 종종 일어나는데요, 이러한 경험들이 자주 쌓이다 보니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화된 것 같아요. ‘비록, 지금은 뒤쳐져도 이겨볼 수 있겠는데?’라는 믿음과 희망을 되새기다 보면, 삶에서도 어려운 일에 맞닿았을 때 포기보다, ‘분명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돼요.”

## 코로나 시대 가장 안전한 스포츠

펜싱은 중세 유럽에서 상대방의 피를 한 방울 먼저 내면 이기는 결투에서 유래했다. 그 결투가 스포츠화된 것이 바로 오늘날의 펜싱 경기이다. 펜싱은 총 세 가지 종목으로 나뉜다. 중세 유럽 결투에서 유래해 전신을 모두 찌를 수 있는 ‘에페’, 그리고 ‘에페’를 연습하기 위해 몸통만 세밀히 찌르는 용으로 탄생한 ‘플뢰레’, 끝으로 말을 타며 상대방의 상반신을 찌르거나 베는 아랍 검술에서 유래한 ‘사브르’가 있다.

종목명만 들어도 생소하게 느껴지는 펜싱에 대해, 김상우 Consultant는 펜싱이야말로 누구나 도전해도 좋을 만큼 안전하고 매력적인 운동이라고 말했다.

“펜싱은 올림픽 격투가 종목 중 체급을 고려하지 않은 유일한 운동이에요. 특히 신체보다 수 싸움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펜싱을 ‘몸으로 하는 체스’라고도 불러요. 무엇보다 일정 거리에 들어오는 상대는 찢러버리면 되는 펜싱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한 코로나 시대 가장 안전한 스포츠인 듯해요. 하하.” 또한, 그는 머리가 좋고 경쟁심이 있는 사람들이 펜싱을 잘한다고 하며, ‘삼정인’이라면 누구나 펜싱을 잘 배우고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적극 추천했다.

## “철이 없었죠, 펜싱이 좋아서 해외훈련을 했다는 것 자체가!”

대학교 시절, 김상우 Consultant는 펜싱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다. 경기에서 패배하면, 상대 선수가 지내는 지방까지 내려가 함께 훈련하며 본인의 약점을 분석했고, 2017년 이탈리아로 교환학생을 갔을 때도 이탈리아 북부 Piancavallo라는 지역에서 이탈리아 국가대표 선수들과 전지훈련을 했을 정도라고. 당시, 불가리아와 영국의 펜싱클럽도 방문해 외국인 선수들과 펜싱을 즐기기도 했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 탄탄한 실력을 쌓았고, 이제는 펜싱 강사도 맡아 하고 있다. “저는 주말에 원데이 클래스로 펜싱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일반인들에게 펜싱이 어렵다는 인식 대신, 펜싱의 매력을 전파하고 싶어 시작하게 되었어요. 언젠가 삼정인들에게도 가르칠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 펜싱 통해 배운 삶의 지혜로 삼정인으로서도 더욱 발전해 나갈 것

그는 펜싱을 통해 배운 삶의 지혜와 긍정적인 변화를 통해 삼정인으로서 발전을 이뤄가고 싶다고 목표를 전했다. “펜싱으로 얻은 긍정적인 마인드로 함께 일하는 팀원분들에게 언제나 도움이 되는, 또 성장을 통해 고객 만족을 이뤄가는 삼정인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펜싱에 대한 목표로는 현재 10개인 금메달을, 3년 안에 20개로 늘려가고 싶어요. 쉽지 않겠지만, 한번 도전해보고 싶네요. 하하” 일과 펜싱, 이 두 마리 토끼 모두를 잡고자 하는 그가 지치지 않고 똑똑하게 본인만의 워라밸을 지켜 가기를 바라며 힘찬 응원을 보내본다.



### 삼정인, 펜싱 하고 싶다면 이것부터!

**첫째, 처음부터 이기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남들이 하지 않는 새롭고 멋진 취미를 시작한다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지는 게 당연하고, 거기에 화를 낸다면 오래할 수 없는 스포츠입니다. 펜싱 자체를 즐기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오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네요!

**둘째, 펜싱은 고도의 지구력과 집중력이 요구되는 스포츠지만 펜싱만 한다고 그 지구력과 집중력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펜싱과 유산소(사이클, 러닝), 무산소 운동(헬스) 등을 같이 겸하면 실력이 금방 올라갈 거예요.

**셋째, 펜싱은 절대, 절대! 진입장벽이 높은 스포츠가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클럽 대부분 월 회비가 15-25만 원이고, 장비는 싸게 맞춘다고 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30만 원이면 맞출 수 있습니다. 펜싱은 절대 비싸지 않은 스포츠입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펜싱을 검색해봐도, 좋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세요~!



## ‘어떻게 살 것인가?’ 선택은 나의 몫!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삶일까? 우리는 환경과 외부 요인에 따라 기분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같은 환경에도 어떤 사람은 감사,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신영철 소장은 기쁨과 행복은 외부 환경 요인에 의해 100%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닌 본인 스스로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라고 한다. 신영철 소장이 전해온 잘 사는 인생은 무엇인지 들어본다.

글.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신영철 소장

부산역에서 택시를 탔다. “00호텔 갑니다.” 기사분이 대답이 없다. 혹시 못 들었나 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다. “해운대 있는 00호텔 갑니다.” 그래도 대답이 없다. 잠시 후 고개를 천천히 돌려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닌가? 그 표정은 짐작이 가시리라. 그러고는 차가 출발을 한다. 가는 걸 보니 듣긴 들었나 보다. “네”라는 한마디가 귀찮은 거다. 이해는 간다. 하루에도 수십 명, 때로는 진상도 만나지 않겠는가? 엄청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식사도 제대로 못 하고 짜증이 날 만도 하다. 그래도 어떻게 살고 싶을까, 그런 생각도 든다.

또 한 명의 생각나는 기사분이 있다. 지금만큼

힘들었던 시절, 바로 IMF 때다. 새벽 다섯 시 택시를 탔다. 젊은 기사가 반갑게 맞아준다. “선생님, 어디로 모실까요?” “00병원 갑니다.” “의사 선생님이세요? 좋으시겠어요. 저도 요즘 행복하답니다.” 이걸 또 무슨 헛소리? 요즘 같은 힘든 시기에 택시를 몰면서 행복하다고? 별 이상한 양반 다 있네, 이런 생각이 든다. “남들은 요즘 실직 걱정하는데 저는 택시를 오래 해서 아무 걱정이 없어요. 어제 제가 지방을 갔는데 27만 원을 벌었지 뭐니까?”

묻지도 않는데 주절주절 이야기가 길다. 사실 속으로 좀 짜증이 났다. 내가 새벽 일찍 택시를 탄 건 빨리 병원 가서 글을 마감해야 해서다. 머릿속이 복잡한데 자꾸 말을 붙이니 좀 귀찮다. 그래서 건성건성 대답을 했다. 병원에 도착하니 요금은 6천 9백 원. 7천 원을 주고 열린 도망가는데 어두운 새벽 뒤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선생님, 왜 그냥 가세요?” 이걸 또 무슨 소리? 분명 7천 원을 주고 내렸는데. 뒤를 돌아보니 그 기



사분이 택시를 세워 놓고 나를 쫓아오는 것이 아닌가? 멍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온다. 그리곤 내 손을 잡으며 뭔가를 쥐여주는 것이다. 멍한 표정으로 보니 2백 원이다. 뭐지, 한참을 바라보고 있으니 씩 웃는다.

“선생님, 이렇게 일찍 오셨으니 커피 한잔하셔야지요. 오늘 힘내시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다. 의사라는 사람이 뒤에 앉아 인상 팍팍 쓰고 있는 모습, 물어도 대답도 신통치 않고. 그냥 갈려고 생각하니 좀 마음이 무거웠나 보다. 그리고 내 손에 쥐여 준 2백 원.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분명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분명한데. 지치고 힘들 때 그가 나의 손에 쥐여 주었던 2백 원을 잊지 않는다.

우리 집은 방마다 천장에 ‘30초 감사’라는 글씨가 붙어 있다. 어떤 일을 계기로 감사의 훈련을 시작했다. 자리에 누우면 보이니 잊을 일도 없다. 짧은 시간도 좋다. 한번 시도해 보시라. 한 달이면 표정이 바뀔지도 모른다. 일 년이면 인생이 바뀔지도 모른다.

요즘 같은 힘든 시기에 감사는 무슨 배부른 소리냐고 할지도 모르겠다. 이해는 간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 불안도 감사할 일이다. 불안하지 않으면, 공포가 없다면, 두려움이 없어진다면 준비성도 없어지고 사고의 위험성도 높아진다. 극단적인 말이지만 통증도 감사할 일이다. 통각이 없다면 뜨거움도, 아픔도 피할 수 없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상상해 보시라.

똑같은 돈을 벌며, 똑같은 보상을 받으며 정반대의 표정으로 사는 두 명의 택시 기사. 세상을 원망하며, 환경을 탓하며 짜증 부리며 살 것인가, 주어진 현실을 유연하게 수용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닐까?



## Profile

### 신영철 교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경북대 의대를 졸업한 뒤 고려대 의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네소타대학에서 연구조교수로 중독 문제에 대해 연수했다. 현재 성균관대 의대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상교수로 근무 중이며 2013년 개설된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소장을 겸하고 있다.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이사장, 대한불안학회 회장, 대한우울조울병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학술 및 다양한 공익활동의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KBS <아침마당>의 ‘수요가족탐구’ 패널로 수년간 활동했고, 최근 저서로는 <그냥 살자>(2019), <어쩌다 도박>(2020)이 있다. 수많은 기업에서 행복, 스트레스 관리, 소통, 공감, 좋은 부모, 리더십 등에 대해 강연했으며, 기업 정신 건강 향상을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삼성KPMG 구성원들의 마음 건강 유지를 위한 ‘CIM(心) Care Program’에 참여하며, 삼성KPMG 구성원들의 스트레스 관리 및 마음 치유를 위한 강연을 진행한 바 있다. 삼성KPMG는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를 통해 구성원들의 마음 건강 진단 및 개별 상담도 진행 중이다.

# 글로벌 파견자가 전하는 어드바이스

## 세계 2위 인구 대국, 인도의 현 상황은?

13억 명에 달하는 인구와 광활한 영토로 무한한 잠재성을 지닌 인도.

인도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4위 수출국이자 13위 수입국이며, 신남방정책의 핵심거점 국가로 앞으로 우리 기업과의 활발한 교류가 기대되는 나라이다. 이번 호에서는 인도 Korea Desk에 파견 중인 이영민 S.Manager를 통해 인도의 현 상황에 대해 살펴본다.

글. 인도 Korea Desk 이영민 S.Manager

E-mail. yeongminlee1@kpmg.com / Tel. +918068335000



### 풍부한 노동력과 소비시장으로 경제 전망 밝아

인도는 1991년 대외에 경제를 개방하면서 매년 6%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뤄왔다. 하지만, 지난해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여파로 큰 경제 타격을 입었다. 인도는 지난 2020년, 1979년 이후 41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이와 함께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사업장폐쇄, 물류난 및 수요 감소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최근에도 인도 내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코로나 이전의 경제 상황으로의 회복이 지연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존재하지만, 13억에 달하는 인구를 바탕으로 한 풍부한 노동력과 증가하는 소비시장 규모를 기반으로 인도의 중장기 전망은 여전히 밝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제조업 육성정책 가속화될 전망

인도는 지난 30년간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해왔지만, 아직 제조업 분야에서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 인도의 모디 총리는 2014년 취임 이후 국내 제조업 강화를 위한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을 시행했으나 기대만큼 높은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지난 2019년 모디 정부의 2기 출범 이후에는 '자립 인도(Atmanirbhar Bharat)'를 슬로건을 내걸어 인도 민간기업과 제조업을 육성하고,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그동안 인도는 제조업의 낮은 경쟁력으로 중국수입품에 대한 의존도가



1. KPMG 인도 Noida 오피스 건물  
2. 인도에서 이영민 S.Manager의 모습

높았고, 대중국 무역수지는 매년 대규모의 적자를 기록해왔다. 지난해 인도와 중국 간의 국경 분쟁은 인도 내 중국산 애플리케이션 사용금지, 중국제품의 수입제한 등으로 이어지며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낮추려는 인도의 정책을 가속화했다. 이러한 갈등을 계기로 자국 제조업 육성정책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중국을 대체하는 글로벌 생산 거점을 목표로 중국 외 국가로 생산기지를 다변화하는 글로벌 기업의 위치를 위해 인도는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 인도 진출, 지금이 최적기 해외직접투자 유치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도입해

인도는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국가로 한국인이 진출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공존의 문화가 잘 형성된 곳이다. 또한, 매년 6% 이상의 경제 성장을 달성하며, 2020년 GDP 기준 세계 6위의 시장으로 성장한 국가로 앞으로의 성장이 더욱 기대되는 곳이다.

이와 함께 최근 인도는 자국제조업 육성을 위해 원산지 규제 강화, 관세 인상 등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과도한 원산지 증명 및 통관서류 요구와 이에 대한 확대된 검증 절차는 한국 기업의 대인도 수출의 높아진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만,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게는 중국의 저가 상품 유입을 막는 보호 장벽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인도는 자국 내 제조업 육성을 위한 생산연계인센티브 등 해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있다. 때문에 현지화를 통한 내수 시장을 고려하는 한국 기업들에게는 지금이 인도 시장 진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좋은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 인도 Korea Desk

한국 고객이 많이 진출한 지역의 KPMG office에는 한국 고객을 주로 담당하는 업무팀이 구성되어 있으며 담당 파트너인 Pardasani Manoj가 총괄하고 있다. 인도 Korea Desk는 인도 KPMG의 Market본부에 소속되어 신규 업무 개발, 진행 중인 감사/세무 및 자문 업무의 진행 과정에서 KPMG 업무팀과 고객사 간 이슈 해결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지 진출한 주재원들이 겪는 주요한 어려움 중 하나인 정보 부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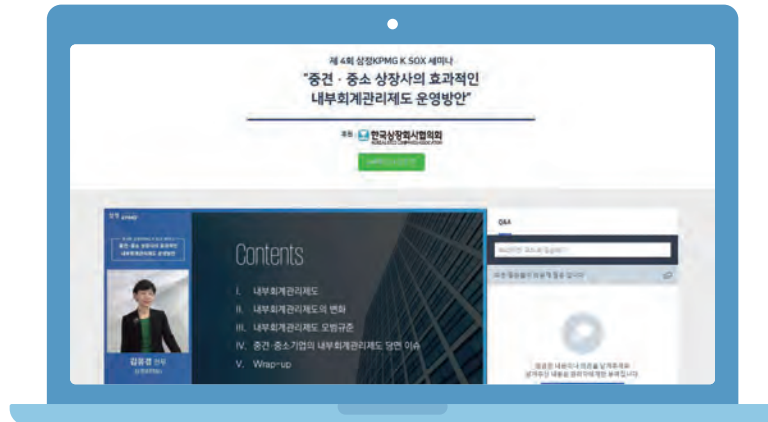
인도 Korea Desk  
이영민 S.Manager



# Samjong News

## 중견·중소기업 대상 'K-SOX 웨비나' 개최

삼정KPMG가 4월 15일 중견 및 중소기업 대상 '내부회계관리제도(K-SOX) 운영방안 웨비나(Webinar)'를 개최했다. 삼정KPMG는 그간 축적한 노하우와 다수의 감사 경험을 바탕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적인 구축 및 운영 방안을 제시했으며, 중견·중소 상장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시 직면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삼정KPMG 김유경 전무가 중견·중소 상장사가 당면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주요 이슈에 대해 안내했다. 이어 중견·중소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최적화 방안이 제시됐으며, 삼정KPMG 지동현 상무, 박관종 상무, 심정훈 상무가 나서 전자수준통제(ELC), 프로세스수준통제(PLC), IT 일반통제(ITGC)에 대해 소개했다. 끝으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강경진 정책1본부장이 연사로 나서, 중소기업에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적용기법 제정 취지와 핵심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 Contact: IA 김영재 연구원 ykim91@kr.kpmg.com

## 대외 강연 통해 ESG 전문 지식 전파에 앞장서



\* 사진 출처: 파이낸셜뉴스

삼정KPMG SCG본부 ESG 전문가들이 활발한 대외 강연을 통해 ESG 전문 지식 제공에 힘쓰고 있다. 이동석 전무(본부장)는 지난 4월 20일 국내 최대 규모 정보통신기술(ICT) 전시회 '월드IT쇼(WIS) 2021'에서 ESG 관련 강연에 나섰으며, 지난 4월 26일 출범한 '한경 ESG 아카데미'에서는 강사진으로 참여했다. 김정남 상무는 지난 4월 21일 진행된 '디지털 이니셔티브 세미나'에서 'ESG 시대, ICT기업의 대응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4월 22일에는 '제22회 서울국제금융포럼'에서 '국내 ESG 투자 이슈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패널토론에도 참여했다.

\* Contact: 이동석 전무 dongseoklee@kr.kpmg.com

## 한국팀, 'KIC' ASPAC 지역 우승 및 Global Top4 선정



‘KPMG 아이디어이션 챌린지(KPMG Ideation Challenge, 이하 KIC)’ ASPAC 지역 대회에서 한국 대표로 출전한 ‘고봉밥팀’이 우승의 영광을 누렸다. 고봉밥팀(성균관대·부산대)은 지난 2월 22~23일에 삼성KPMG 주관으로 열린 ‘2021 KPMG 아이디어톤(Ideathon)’에서 교육 동영상 자동 북마크 생성 기술을 선보이며 우승한 팀으로, 이를 통해 KPMG 글로벌이 주관하는 ‘KIC’ 참가 자격을 얻은 바 있다.

고봉밥팀은 한국 대표로 지난 4월 12일에 ‘KIC’ ASPAC 지역 대회에 참가해 호주, 중국, 베트남 등 총 4개 국가의 국별 대회 우승팀과 열띤 경쟁을 펼쳤다. 그 결과 교육 동영상 자동 북마크를 주제로 발표를 한 고봉밥팀이 ASPAC 지역 최종 우승자로 선정됐다. 이로써 고봉밥팀은 ASPAC 지역 최종 우승팀으로, 4월 13일에 열린 ‘KIC’ 글로벌 결선에 참가하여 지난해 우승 국가인 인도를 비롯해 미국, 베네수엘라와 최종 우승을 두고 경합을 펼쳤다. 한국의 고봉밥팀은 혁신성, 현실화 가능성, 신기술 응용성 등에 뛰어난 발표를 보여주며 선전을 펼쳤지만, 최종 우승은 식물을 이용한 발전 패널을 주제로 발표한 베네수엘라팀이 가져갔다.

한편, 한국은 ‘KIC’ 글로벌 결선에서 아쉽게도 우승하지는 못했지만 ‘KIC’에 참가한 지 2회 만에 ASPAC 지역에서 첫 우승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올해를 계기 삼아 다음 해 ‘KIC’에서는 한국팀이 최종 우승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Lighthouse 개발, ‘BEI Chatbot’ 서비스 업데이트

삼성KPMG Lighthouse가 감사업무 수행 시 필요한 단순 조회 업무를 자동화하고, CEAC 고객평가 시 KYC(Know Your Client) 정보 취합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한 ‘BEI(Business Entity Inquiry) Chatbot’ 서비스 업데이트가 진행됐다. MS Teams를 통해 챗봇(KR-BEI-Chatbot)에 요청하여 조회 업무 등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주요 기능으로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휴폐업 조회 ▲금융결제원 KNote 사이트를 통한 당좌거래정지여부 조회 ▲Refinitiv 데이터베이스인 World-Check를 통한 고객 정보(Client Background Check) 조회 등이 있다.

# Samjong News

## 스파크랩과 스타트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



삼성KPMG는 지난 4월 23일 스파크랩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파크랩 본사에서 스타트업 인수합병(M&A)과 투자유치 활성화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협약에 따라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략적·재무적 투자자 유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비즈니스 멘토링 ▲회계·재무 자문 서비스 지원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 비대면 봉사활동 ‘특별한 도서 제작’ 진행

삼성KPMG는 4월 20일 장애인들의 날을 맞아 서양악기 10종에 대한 정보가 담긴



‘특별한 도서 제작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특별한 도서란 촉각, 점자, 큰글자, 음성으로 구성된 도서이며, 시각장애 아동들이 보다 쉽게 정보에 접근하여 책을 통해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에는 삼성KPMG 임직원 및 가족 총 55명이 참여했으며, 제작된 특별한 도서는 시각장애학교, 국립립도서관 등에 전달되어 시각장애아동의 학습 및 독서 교재로 사용된다.

### INTRODU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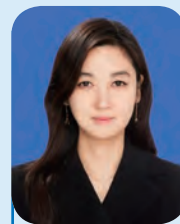
### 신규 영입 파트너를 소개합니다!

#### Digital본부 이지현 상무 영입

삼성KPMG가 2021년 3월 31일 Digital본부에 이지현 상무를 영입했다.

이지현 상무는 Accenture, IBM GBS, EY, Deloitte 등의 글로벌 컨설팅사에서 최고 경영진 대상 Digital 전략 수립부터 Digital 조직 및 거버넌스 체계수립, Digital Solution 도입에 이르기까지 End-To-End 역량을 보유한 전문가이다. 그간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이끌며, 삼성KPMG Digital 컨설팅 성장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한편 이지현 상무는 “COVID-19의 상황에서도 두 자리 성장을 일군 삼성KPMG의 일원이 되어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하며, 그동안의 디지털 컨설팅 경험 및 삼성KPMG의 축적된 역량을 토대로 고객에게 한 차원 높은 디지털 전환 방안을 제시하겠다”라고 입사 포부를 밝혔다.



이지현 상무 (Digital본부)

#### 경력

- IBM GBS 상무/파트너 (2018~2020년)
- Deloitte 상무 (2016~2017년)
- EY 이사 (2012~2015년)
- Accenture 부장 (2011년)

## 온라인 지식 콘텐츠 플랫폼 '삼정KPMG 아카데미' 정복하기!

### 특집 I 감사위원회 교육에는 어떤 교육 과정이?

삼정KPMG는 지난 4월, 회계·감사 전문가들에게 무료 강의를 제공하는 '삼정KPMG 아카데미'를 런칭했다. '삼정KPMG 아카데미'는 온라인 지식 콘텐츠 플랫폼으로, ▲정규교육과정 ▲이슈브리핑 ▲비즈니스 리포트 ▲세미나 다시보기 등 4개 섹션으로 구성됐다.

이 중 '정규교육과정'은 회계투명성 강화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커리큘럼으로 감사위원회 교육 프로그램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호에서는 정규교육과정 중 하나인 감사위원회 교육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본다.

정규교육과정 내 감사위원회 교육은 신규 선임된 감사, 감사위원을 위한 입문 과정부터 구체적인 주요 활동을 담은 심화 과정까지 포함되어 있다. 강사로는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리더인 김유경 전무를 비롯해 분야별 전문 파트너들이 참여해 감사위원회 교육에 대한 전문 지식을 전파했다.



삼정KPMG 아카데미



www.kpmgacademy.co.kr  
포털사이트에서 '삼정KPMG 아카데미'를 검색하거나,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하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

#### 감사위원회 교육 과정 소개



##### 입문 과정



감사나 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된 이후 직무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내용을 담은 입문 교육 과정이다. 감사위원회 핸드북에서 다루는 4개의 주요 내용(기업지배구조, 감사위원회 제도, 감사위원회 운영, 감사위원회 활동 방안)을 중심으로 감사위원회의 역할, 책임 및 주요 활동 등을 담고 있다.



##### 심화 과정



감사위원 재임 중 업무 수행을 위해 입문 과정에서 기초적으로 다룬 각각의 활동 영역에 대해 구체적인 활동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외부감사인 선임 및 감독 활동을 드라마 형태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 Special Topic



감사위원의 재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주제들을 Special Topic으로 제공한다.

\* '삼정KPMG 아카데미' 관련 문의: BD&Markets 박혜경 이사 (hyekyungpark@kr.kpmg.com)



## 경영 패러다임 변화 속 지속가능한 성장 아젠다 제시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과  
산업별, 분야별 인사이트를 포함한 지식 콘텐츠 제공

# 온라인 지식 콘텐츠 플랫폼 삼정KPMG 아카데미



### 정규 교육 과정

- 감사위원회 교육 프로그램
-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프로그램

### 이슈 브리핑

- 국내외 주요 트렌드와 산업별 이슈를 영상 콘텐츠로 제공

### 비즈니스 리포트

- KPMG의 발간물과 분야별 분석 보고서 저장소

### 세미나 다시보기

- 삼정KPMG 주요 세미나 다시보기

### 접속 방법

[www.kpmgacademy.co.kr](http://www.kpmgacademy.co.kr)

포털사이트에서 '삼정KPMG 아카데미' 검색

### 이용 대상

누구나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이용 가능

삼정KPMG 아카데미  
미리보기



독자 여러분의 의견은 Channel을 만드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Channel을 읽은 후의 느낌과 다양한 생각을 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신규 구독을 원하시는 분 또는 Channel 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 [kr-fmchannel@kr.kpmg.com](mailto:kr-fmchannel@kr.kpmg.com) Tel : 02-2112-7567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1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